

'익산 글로벌문화관' 호응

지난해 11월 개관 이후 방문객 잇따라... 전통의상 체험 등 상시 특별프로그램 운영

한 곳에서 세계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익산 글로벌문화관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글로벌문화관은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글로벌 사회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도내 최초 글로벌 전시체험시설인 '익산 글로벌문화관'의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약 3천여명이 이곳을 이용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 한달여 동안 개관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월 평균 700여



명이 방문한 셈이다

중앙로 교복거리에 위치한 글로벌문화관은 각 나라의 다양한 전통 문물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으며 나라별 전통문화와 음식 등을 체험하며 세계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지상 3층 규모로 1층 글로벌식당과 카페, 2층 세계 전통 문물 전시관과 의상체험, 3층 요리체험실과 교육실, 옥상에는 하늘정원 등으로 조성됐다.

특히 1층에 조성된 글로벌 식당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인기다. 세계 5대 음식으로 꼽히는 태국음식점(크루아타이)이 현재 입점해 운영 중이며, 이달 중순 중국전통음식점(식백미)까지 개업 예정이어서 다양한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카페 '좋아서'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을 종사자로 고용하여 세계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는 지역화폐 '다이로움' 정책을 고도화해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추진위원회 실무TF팀 운영

익산다이로움 고도화로 경제회복 '총력'

익산시는 지역화폐 '다이로움' 정책을 고도화해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시는 최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익산시민상생발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이로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다이로움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익산다이로움의 발행특성인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5가지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인센티브 구매 한도 조정과 차등 소비촉진지원금 제도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익산다이로움 연매출액 기준으로 가맹점을 제한하여 가

맹점 상위 쏠림을 방지하고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안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착한소비운동 특별이벤트 업종별 차등 적용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연합회, 시민단체, 지역화폐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형 기본소득 확대, 지역화폐 페넨다 재정 정책수단으로 인식 전환,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가맹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층 토론회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행을 위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익산다이로움 발전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 관계자와 각계각층 전문가(8명)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심의취사향과 고도화 정책 방안 등을 운영추진위원회 실무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국가예산 확보 총력 대응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 ·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등 건의

군산시는 황철호 군산시장 권한대행이 3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2023년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대응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먼저, 기획재정부 전북 항우 인사를 만나 군산시상생발전국비지원, 리츠프라자호텔~지곡교회 도로개설 및 롯데산 SOC 정비사업, 새만금 신공항 건설,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군산-여천도-연도 항로분리 등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기획재정부 김장훈 총사업비관리과장을 만나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의 총사업비 심의가 빠른 시일 내에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시민의 열망과 지역의 의료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군산시는 황철호 군산시장 권한대행이 3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2023년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대응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수산부 이상호 항만개발과장을 만나 뉘시어선 등 날로 증가하는 수요로 집안시설이 부족한 비응항의 어항구 확장개발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등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요청하였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민간기록물 보존·활용·공유 인프라 구축

익산시는 익산의 기록을 관람하고 체험하는 '익산시민역사박물관'을 구)익우수리조합에 조성한다.

시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해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익산의 변화와 발전, 생활상을 기록해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도 다양한 민간기록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제2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시민기

록 활동가 양성과정, 공모전 관련 전시회 및 도록 제작, 기록화 조사연구 집 발간, 기록문화 확산 민간협력 강화 워크숍, 민간기록물 기본 계획 용역 등을 추진하며 체계적인 보존·활용·공유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기록물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전시회의 상설 전시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답아서, 익산의 기록을 관람 및 체험할 수 있는 '익산시민역사박물관(가칭)'을 구)익우수리조합(평화동)에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3억원을 확보한 사업인 '허더든누구든 기록관'은 시민이 기증한 기록물과 익산시가 수집한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구축하는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추진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산학융합원 사업 참여청년 간담회 개최

군산시는 전북산학융합원 산학마루에서 '민노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사업 참여 청년과 간담회를 가졌다

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참여 청년들의 사업 이해도 및 참여도를 높이고 내실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사업 수행기관인 전북산학융합원 관계자와 현재 사업에 참여 중인 17개 사업장의 청년 근로자 30명이 참석했으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청년 지원 혜택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사업 개선 방향 등

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근로자 박찬유 씨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기개발비나 문화여가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생겨서 좋다"고 사업 참여 소감을 말했다.

한유자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역발전의 동력인 청년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군산사랑카드 택시요금 결제 가능

군산시는 4일부터 '군산사랑카드' 택시요금 결제서비스가 가능하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개인 및 법인 택시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조폐공사와 교통사업자 등과 함께 시스템 개발에 이어 사전테스트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에 시민들은 택시 이용 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고, 거스름돈을 주고 받아야 하는 불편도 덜게 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군산사랑카드 택시요금 결제 서비스는 군산 개인택시 932대와 법인택시 12개사 488대 등 관련 운행하는 모든 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자체의 택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청년센터, '실전 면접 대비반' 운영

익산청년센터 청사에서 소방공무원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전 면접 대비반을 운영한다.

실전 면접 대비반은 6월에 진행될 소방공무원 최종 면접에 대비해 1인 면접과 집단면접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청사에서 자소서 개서 컨설팅부터 인성 면접 지도, 집단면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배출한 4명의 소방공무원과 함께 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생생한 합격 후기와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 또는 관내 재학생 중 졸업반인 청년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익산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병두 일자리정책과장은 "청년들의 성공 취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